

# David DeSilva 박사, 신약성서의 문화 세계에 관하여, 세션 3, 후원과 상호주의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신약성서의 문화세계에 대해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입니다. 세션 3, 후원과 호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1세기 지중해 문화의 기반이었던 후원이라는 사회 제도와 상호주의 정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공한 개인적인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공평함을 표현하거나 무언가로 인해 패배했다는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훨씬 더 비인격적이고 비관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은 적어도 특정 시점까지는 상당히 비개인적인 지원 절차인 경향이 있습니다.

물건이 필요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충동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상점, Amazon.com 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거나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현재 어떤 일을 위한 자원이 없더라도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비인격적인 기관, 은행, 신용 조합 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우리는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의 1세기는 이 모든 것과는 별개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장에 있는 음식 이상의 많은 요구 사항에 대해 첫 번째 주문 리소스는 귀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관대함의 가치 또는 미덕과 감사의 가치에 기초한 주요 접근 수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의의 미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1세기의 정보 제공자인 세네카(Seneca)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On Benefits에서 후원, 우정,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정신에 대해 실제로 놀랍도록 직접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호의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 사회의 주요한 유대를 구성하는 관행이라고 쓴 세네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의 주요 직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에는 시장이 있고 아마도 마을에도 생선, 야채, 빵 등을 사러 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장인과 공예가가 있지만 고대 세계에는 현대 서구 세계에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찾는 경향보다 일상 생활에서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후원자는 돈이 부족할 때 곡물을 제공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찾을 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토지를 부여하는 등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러한 호의를 청원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romanforum.com이나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 입사 지원서를 게시하는 것보다 직업적 또는 사회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고객이 있고, 도움을 받는 고객이 있고, 고객의 입장에 서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는 고객은 감사의 의무, 받은 은혜를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후원자의 평판을 높이십시오.

고객은 또한 특정 후원자에게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한 도시의 후원자들은 그들만의 게임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승진을 추구하고, 도시에서 직책을 맡고, 직위에서 승진하기 위해 정치적 게임을 했습니다.

고객은 고객을 지원할 것이므로 관대함, 도움 및 지원을 통해 많은 수의 고객을 모으는 것도 권력 기반을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고객으로서 가능한 한 내 고객의 이익을 증진할 것입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후원자에게 현물로 선물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후원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일종의 진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The Godfather*의 오프닝 장면은 아마도 여전히 최고의 소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현대적인 장면이 후원에 대한 최고의 소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지중해의 맥락에서 설정되었습니다. 후원자는 고객을 모으고, 후원자는 모든 종류의 요청을 들어줄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 수행을 요청받는 일이 발생하면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의 정신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후원자에게 토지를 부여하거나 흥작으로 인해 가족을 구출한 대가로 결코 보답할 수 없지만, 요청을 받으면 그를 위해 몇 가지 봉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며 후원자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후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현대 용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고객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좋은 증언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처남, 숙부, 시아버지 등 모든 것이 오이디푸스 이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의 형제인 크레온은 스포일러 주의,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엇인지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 자신이 그 자체로 부양할 수 있지만, 그가 오이디푸스 왕의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환영받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호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귀를 구합니다. 로마인 플리니우스나 마침내 속주 총독이 된 원로원 의원이었던 키케로의 편지를 읽으려면 그들이 묻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터키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비티니아와 폰투스.

물론 Cicero는 제국 이전 시대, 공화주의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중개업의 사례를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티니아와 폰투스의 총독인 플리니우스는 지방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과 봉사, 승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서 거의 누구도 갖지 못하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는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리니우스가 추구하는 것 중 많은 것은 트라야누스만이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liny의 충실한 마사지사에게 로마 시민권을 선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후원자로서 플리니우스의 힘은 훨씬 더 큰 후원자의 선물을 중재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회적 불평등 측면에서 후원과 고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후원자는 강력한 사람이고, 더 부유하고, 더 나은 자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열등자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역동성은 사회적 평등 사이에도 존재했습니다. 플리니우스와 다른 지방의 또 다른 주지사인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은 서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후원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객이 되기 위해 천대받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서로를 친구로 생각할 것입니다.

1세기의 우정의 언어는 평등한 사람들, 사회적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후원의 언어였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의 수난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수난 이야기 속에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의를 보여 헤롯에게 이 예수의 사건을 재판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빌라도와 헤롯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친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갑자기 경쟁 관계에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는 관계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서로의 이익을 돌볼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라면 그 점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빌라도도 자신의 주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이루었으며, 이후에는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후원, 호혜, 우정은 1세기 세계의 엘리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엘리트와 비엘트를 연결하는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동일한 종류의 시스템, 동일한 정신이 농촌 인구, 농업 계층 사이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작가인 헤시오도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일반적인 농촌 생활을 많이 다룬 작품인 그의 작품과 나날들에서 그는 농민 마을에서 호의, 봉사, 선물 교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네 이웃에게서 공평하게 갚아 그와 같거나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나은 것으로 갚아 나중에 네게 궁핍할 때에 그에게 평안을 얻게 하라.

헤시오도스가 보고 있는 것은 이웃 A가 이웃 B를 도우려는 의지입니다. 다음 작물을 심을 씨앗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웃 A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이웃 B가 다시 궁핍해질 때 자신을 명예로운 고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이웃 B의 지혜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이웃, 명예로운 친구. 주어진 호의나 선물을 더 나은 방법으로 보답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정신은 호의를 교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현대 지중해 농촌 마을에서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으며, 호의에 보답하지 않으면 결국 호의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실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 사람은 항상 어느 시점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공적 혜택과 개인적 후원의 차이를 관찰해야 합니다 . 지중해에 있는 거의 모든 고고학 유적지나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도시의 부유한 구성원이나 다른 도시의 부유한 구성원이 대중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수많은 비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년마다 게임을 후원하는 것, 자비로 축제를 선물하는 것, 사원을 선물하는 것, 보도나 분수를 선물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증언할 기념물, 즉 자신의 관대함을 항상 증언할 기능적인 기념물을 가짐으로써 대중에게 기부함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 그리고 아마도 당시에 이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 인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은인, 그 공공 은인이 갑자기 도시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망을 형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일반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므로 특별히 누구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중 전체는 감사와 존경을 표할 것이지만, 어떤 특정 에베소인도 새로운 샘에 대해 막시무스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는 막시무스의 분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후원이나 우정이 일대일로 이루어질 때는 매우 다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 도시의 부유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접근할 때, 그 청원자에게 응답하고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고결하다면 내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행동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통 그 사람, 때로는 그녀, 하지만 보통 그 사람은 내가 베푼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보답할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다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입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좋은 수신자라면, 나는 실제로 거절할 입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줬으니 그 사람도 감사를 표시했으니 나도 다시 줘야지.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내 이익을 증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기부 행위는 평생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n Sirah나 To Demonicus 컬렉션의 저자와 같은 일부 작가를 읽으려면 . 이는 4세기 그리스 연설가이자 연설가인 이소크라테스에게 바치는 헌사이지만 필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언 모음을 읽으면 아버지의 우정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여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세대를 초월한 우정, 즉 후원과 고객의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에 세네카는 "부탁을 주거나 부탁을 받기 전에는 매우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잠재적으로 이와 같은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를 개념화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대 민족의 경우, 하나님과 함께 후원과 고객을 받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주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인간 후원자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명예를 신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들의 선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의 제사입니다. 중재자인 중개업은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환경은 물론 유대인과 기독교 환경에서도 신권의 모델이 됩니다.

사실, 사제를 뜻하는 라틴어는 오히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리 (bridge), 폰투스(pontus),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 폰티펙스(pontifex)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말 그대로 다리를 짓는 사람으로 명명됩니다.

그 또는 그녀는 사람과 신, 신과 사람을 연결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켜 청원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제물이 한 사람에게 반환되고 그 대가로 다시 숭배자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신성한 후원자와 인간 후원자 사이의 이러한 경계는 고대 세계에서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세계, 특히 지중해 동부 지역의 황제 숭배 현상은 우리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도시를 해방시킨 장군들은 감사의 표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 폴리오르케테스(Demetrius Poliorcetes)는 아테네가 침략자의 세력 아래 놓이는 것을 막은 장군이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에 대한 비문에는 데메트리우스에 대한 숭배인 숭배가 아테네에 확립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테네인들이 기도하던 선물을 신들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비문에서 우리는 다른 신들이 멀리 있거나 귀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당신은 돌이나 나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노니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아우구스투스의 등장까지 300년이 빨리 지나갑니다. 사실 헤롯 대왕의 동시대 사람이자 헤롯 대왕의 개인적인 친구이자 당시 역사가였던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스는 아우구스투스 숭배의 탄생에 대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지중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처럼 그의 명예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섬과 대륙을 넘어 도시와 지방에 조직된 사원과 제사를 통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미덕의 위대함에 걸맞게 그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 그들을.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세계에 신들이 줄 만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한 세대의 내전이 끝날 때 평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그의 양부인 Julius Caesar도 마찬가지로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성공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리하여 지중해 지역 전체에 안정과 안전, 번영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그의 선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사의 응답도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침에 기인해야 할 일로 지중해 주변, 특히 동부 절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방식으로 예배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의 호의, 당신이 가진 선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로마 종교를 라틴어 표현인 *do ut des*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줄 수 있도록 준다. 그래서 그리스-로마 종교와 유대교 또는 기독교 종교를 구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는 신들이 어떤 요청을 들어주도록 자극하기 위해 주는 것이고, 후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증거가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간단히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do quia de disti* 감각의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라틴어를 잘 못해요.

그것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당신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로마 세계와 유대 세계 모두에서 종교의 원동력입니다.

나는 어떤 희생, 어떤 칭찬,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든 당신이 주신 은사를 인정하기 위해 이것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의 은사를 감사하게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좋은 후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에게 합당한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더 많은 선물을 위해. 여러분은 그 점에 있어서 그리스-로마와 유대 문학 모두에서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의 정신에 초점을 맞춰 은혜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은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나는 현실 세계에서 은혜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는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신학교와 교회에서만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전문적인 종교 용어가 되기 전에 바울과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이 썼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는 은혜가 일상적인 단어였습니다. 호의를 주고 받고 보답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의미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 그 세상에 다가갔습니다.

자, 그 세계에서 카리스는 실제로 네 가지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력적이거나 우아하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거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카리스(charis)는 아름다움이나 균형을 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선물, 즉 신들이나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카리스는 세 가지 의미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후원자나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고, 도와주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리스를 해당 맥락에서 호의 또는 은혜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기꺼이 주겠다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은혜입니다. 카리스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선물, 즉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이것은 복수형 선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도움이나 실제로 주어지는 선물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감사 또는 감사입니다. 이 단어는 기도와 예배 언어, 또는 바울이 할 일종의 자발적인 사정에서 그러한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는 카리스(charis) , 토테오(totheo) , 하나님께 대한 은혜(grace to God)인데 이는 호의라는 의미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표하는 의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리스 의 반대말은 은혜가 부족한 아카리스티아 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주로 배은망덕,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것,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카리스 라는 단어는 주는 사람의 호의, 선물 그 자체, 받는 사람의 감사의 보답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

이것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많은 도덕주의자들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만나야 합니다. 호의는 항상 호의를 낳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남용되고 아름다운 것이 추악해지고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정신과 어울리는 매우 일반적인 이미지는 세 가지 은혜의 이미지입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심지어 터키에 있는 상당한 규모의 박물관에 가면 아마도 세 가지 은총에 대한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은 둘 다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하나는 폼페이에서, 또 하나는 현재 로마 중심부에 있는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있는 로마의 별장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키레나이카, 현대 리비아, 로마의 키레나이카 지방, 소아시아의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세 가지 은혜를 표현한 프리즈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내 말은, 내가 발견한 것처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박물관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유비쿼터스 지중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의를 주고 받고 보답하는 사회 제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다시 한 번 혜택에 관한 그의 책에서 실제로 이 이미지를 가리키며 이 이미지를 해석합니다. 그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 은혜는 신성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신의 딸들이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썼습니다. 하나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혜택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기 또는 은총의 순환의 각 측면은 이러한 신들 중 하나인 님프 중 하나로 표현됩니다. 그는 그들이 이익 때문에 손을 잡고 춤을 추며 그 과정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면서도 주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썼습니다. 선물을 잘 받고 잘 돌려준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의 요점입니다.

그는 이 코스가 어디에서든 깨지면 전체의 아름다움, 이 춤의 아름다움이 파괴된다고 썼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유지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세 가지 은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상호주의 정신, 돕고자 하는 의지, 선물이나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 선물과 도움을 소중히 여기는 헌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갖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무, 즉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돌려주겠다는 받는 사람의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순환은 평생 동안,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며,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사람들이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지원, 지원 및 협력의 관계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감사는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으나, 배은망덕은 신성 모독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토스와 제도가 세 여신으로 대표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나쁘게 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여신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에 보답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이며, 온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맥락에서 또 다른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서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은혜와 신약성서에서 특정 관계가 묘사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신약성경 본문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석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먼저 작가와 청중의 일상 세계에서 은혜의 언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받거나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편지의 저자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기 훨씬 전에 은혜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세계에서 은혜에 대한 지식과 기대를 형성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청중들이 기독교 교회의 종교 모임을 넘어서 이 언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청자들은 이러한 다른 상황에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본문을 듣는 데 어떤 정보와 전제를 가져올 것인가? 바울은 은혜에 대해 말할 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신약성경 저자가 청중이 본문 해석이나 서로 상호 작용에 가져올 수 있는 전제나 경험에 도전하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정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작가는 그 정신에 의존하고 이를 토대로 구축합니다. 즉, 한편으로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은혜와 상호주의의 정신에 관해 논의한 많은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회중에서 선물을 교환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전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주목할만한 방법은 그의 기독교 공동체의 부유한 후원자들에게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권력 기반을 구입하여 특정 공동체의 다른 부유한 기독교인에 대항하여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고린도의 주요 문제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 집회에 집과 음식과 환대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내가 단지 전체 집회를 나의 고객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기대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청지기 직분과 같은 다른 개념을 방정식에 도입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후원, 우정, 고객의 정신에 대해 좀 더 완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은혜롭게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형적인 1세기 사람이 은혜롭게 베푸는 것에 관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지식은 무엇입니까? 잘 살고 싶은 기부자, 세네카나 벤 시라처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기부자는 나쁜 기부자를 경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대가를 통해 주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받는 사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n Sirah는 본질적으로 속담 모음에서 이런 방식으로 은혜롭지 못한 기부자를 희화화합니다.

무분별한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은 대가로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비난하기도 하며, 고을의 외치는 사람처럼 입을 열 것이다.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의 선행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보답을 받을 목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되며, 우아한 받는 사람이 보여줄 호혜성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또한 주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혜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데모니쿠스 의 조언 모음집을 보면서 우리는 선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호의를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감사의 창고는 큰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길 잃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 먹이 주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 입니까? 감사하는 법을 아는 것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평판은 고대부터 좋은 신용 등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세한 선이 있습니다. Seneca가 쓴 것처럼 나는 선물을 받을 사람을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특정한 보답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보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보답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평가는 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말했듯이, 주는 것이 순수하고 고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줄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귀하는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관계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품의 교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정이나 후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타인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세네카와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도 기부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게 하는 신들을 모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면 그럴 것입니다. 놀라운 유사점입니다.

예수와 세네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신들을 본받아 베풀고, 악한 자의 배은망덕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익, 미덕을 일깨우려는 희망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가끔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공익은 고귀한 기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목적은 보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잘 받기, 은혜롭게 혜택을 받기 위한 분명한 정신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만 생각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 대한 빛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혜택에 관해 같은 책에서 감사하려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동안에도 그 혜택에 보답하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썼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의의 미덕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에는 은인을 존중하고 받은 호의에 대해 합당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춤의 이미지, 원을 그리며 춤추는 세 여신의 이미지,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파트너의 발가락을 짓밟고 춤을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고대 세계 에는 감사를 강요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재 조치가 없었습니다 . 지속적인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은혜가 됩니다.

이제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다양한 표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세 가지 범주 중 하나 이상에 속하며, 첫 번째는 후원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간증을 통해 후원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수혜자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주고, 주는 사람이 듣는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를 증언하도록 촉구합니다.

제작물 의 경우에 발생하며 , 훨씬 더 값진 선물의 경우에 세워진 동상이나 공공 행사 등에서 은인을 기리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우연히도 이것은 말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간증을 하고, 감사와 찬양의 시를 읊는 빈번한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외경인 토빗(Tobit)에는 천사 라파엘이 하나님께서 최근에 재난에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 모든 산 자 앞에서 그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라. 그를 인정하는 데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인정하라.

명예는 감사에 대한 보답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선물 자체에 대한 봉사나 기타 보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네카는 주는 사람의 관대함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때 보상받는다고 썼습니다.

물질적인 은혜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아직 갚지 못했지만 여전히 갚기를 희망합니다. 영업권, 유리한 처분에 대한 유리한 처분의 채무가 영업권의 반환으로 변제되었습니다. 물질적 부채에는 물질적 반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을 현실세계나 물리적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지원이나 서비스로 좀 더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물질적인 방법으로도 황제에게 선물을 갚을 수 없지만, 황제가 뭔가 해야 할 때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황제가 뭔가 해야 할 때 주지사의 명령을 많이 수행함으로써 황제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과정의 일부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미 이것과 하나님의 연관성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보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평생의 순종과 봉사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응답의 세 번째 요소는 후원자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후원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한 충성심은 감사와 연결의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단지 고귀한 사람이 되어 승리할 것 같은 파티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나에게 도움과 도움을 주면서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의 편에

서야 합니다. Seneca는 이러한 충성심이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내가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그 비용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위험이 두렵습니다. 나는 내 후원자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내는 것을 꺼립니다.

차라리 내 이익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세네카가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일반 무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누구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면 기꺼이 포로로 가거나, 피를 흘리거나, 가난을 겪거나, 심지어는 순결함마저 더럽혀지고 수치스러운 비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다른 모든 고려 사항보다 후원자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그 관계를 끊기보다는 그와의 관계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가 당신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헤롯 대왕에 대해 나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체로 바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치기 전인 젊은 시절, 그는 마크 안토니우스의 충성스러운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은 안토니우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이집트에 주둔하지 않았던 로마의 모든 군단이 될 옥타비아누스와의 내전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그에게 꽤 잘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안토니우스가 기원전 31년에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원자가 치욕스럽게 죽은 지금 헤롯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헤롯은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앞에 와서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나는 Antony와의 관계를 경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후원자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에 대한 충성심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옥타비아누스가 된 아우구스투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충실한 고객이자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거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헤롯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이러한 관계의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본거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버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 제도의 관점에서 그리스어 카리스(charis) 라는 단어만큼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신앙과 그 반대에 관해 이야기하는 눈에 띄는 장소는 후원자-고객 또는 우정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나 신뢰로 번역하는 그리스어인 피스티스(Pistis)는 약속한 것을 주겠다는 후원자의 신뢰나 친구의 신뢰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고객의 신뢰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도, 특정 후원자나 친구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피스티스 (pistis) 의 반대말은 아피스티아(apistia) 로 , 일반적으로 불신이나 불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후원자나 친구, 심지어 고객의 신뢰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이 관계에 대한 불충실함, 불성실함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 신실함, 불신, 불충성이라는 단어가 은혜의 관계, 후원자-고객 관계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자는 종종 하나님이나 예수이고 고객은 인간 제자입니다.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복음의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중개하고,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일화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부장에게 아주 귀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하인을 고쳐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그를 위해 이 일을 하게 할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나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내  
 밑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온다.

내가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 종이 이를 행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오는 무리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종이 건강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역학을 살펴보겠습니다  
 . 백부장, 로마인, 외부인, 그리고 자신이 유대, 갈릴리의 억압적인  
 계급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실제로 이 경우에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유급 의사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가족의 사랑스럽고 신뢰받는 일원이었으며 백부장이 깊이 보살펴주는 하인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라는 평판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이 시점에서 이미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온갖 종류의 신성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압제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좀 냉담하게 말하면 그에게 빛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장로들은 후원을 즐겨 왔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의 유대인 공동체 전체는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후원을 누리왔습니다. 그들은 추악한 로마인이 아니라 선한 로마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가버나움 공동체에 자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세기 회당의 기초가 아닌 1세기 회당이 오늘날까지도 가버나움에 남아 있습니다. 4세기 석회암 회당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 백부장이 이 기초를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익을 준 사람들을 보내며, 유대인 공동체의 장로들은 아마도 그가 그들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답으로 마침내 그들의 지역 후원자를 위해 실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온 힘을 다해 백부장의 덕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위해 이 일을 하도록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당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국민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로마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재자, 중개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동족의 일원,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백부장의 은총을 받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대함에 대해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자, 그것은 이미 이러한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가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친구로 부름을 받은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가족의 일부이자 그의 확장 고객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친구들에게 당신이 있는 곳에서 멈추라고 말하라고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 일을 할 권한이 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말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을 권위로 이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신성한 은총에 관해 그런 종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단어인 *pistis* 의 놀라운 예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런 종류의 신뢰, 나의 신뢰성에 대한 이런 확신은 이스라엘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여기서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이야기에서 우리는 실제로 작동하는 많은 역동성을 봅니다.

중재, 상호주의, 장로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한 로마 장교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믿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 히브리서라는 한 본문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신약성서의 편지에서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서의 문화세계에 대해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입니다. 세션 3, 후원과 호혜입니다.